

은퇴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관련성 분석

윤순덕·박공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Mig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ies in Korea

Yoon, Soon Duck · Park, Gong Ju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Suwon, Korea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 gradual growth of retired in-migrants in high-amenity, rural areas in Korea. However, little has known about that the retirement migration is a blessing or a blight for a local economy in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te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mig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ies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used the 1995 and 2000 census data and annual regional statistics for 138 counties in Korea. Based on the previous empirical studies, economic development was measured by 3 indicators such as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job creation in the wholesale and retail sector, and the increase of local tax. Also, cross-tab, scatter plot, and correlation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dows Program. The finding are as follows: First, from 1995 to 2000, nearly 11 percent of rural counties showed 10 percent and over increase of in-migration rate among retirees. Second, correlation statistics showe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in-migrant flows and economic resurgence. In particular, retirement in-migration rates were significantly tied to the job creation of the wholesale and retail sector ($r=.19, p<.05$) as well as car ownership rate ($r=.58, p<.001$) resulting in the increase of local tax. However, there was non-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tirement in-migrant flows and GRDP change ($r=.13$). Knowledge of these relationships will be important to policy-makers and for understanding the role that retirement in-migration play in stimulating economic growth of rural communities in Korea.

Key words: retirement migration, local economy, rural community, retiree attraction

I. 문제제기

서구에서 일찍이 은퇴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결부시켜 관심을 갖게 된 데는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

력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부터 농촌에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서구의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은퇴자들이 이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구명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시작하였다.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전

략으로서 은퇴자유인정책은 쾌적성을 추구하며 건강하고 자산 있는 젊은 노인부부를 겨냥하여 이루어졌다(Skelley 2004).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이란 결국 농촌의 과소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역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정인구가 살아야하고 그러려면 도시의 인구를 농촌지역으로 유입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때 젊은이는 지역 간 인구이동에 있어 고용관계나 노동시장 등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노인인구의 이동은 농촌이 지닌 쾌적성(amenity)에 대한 소비동기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Judson et al. 1999; Warnes & Law 1982), 은퇴자들을 농촌으로 이주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사회에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부양비의 증가를 가져와 오히려 지역경제에 부담이 되는 존재로 평가될 수 있다. Deller(1995)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와 주의 의료비용 지출에 부정적일 수 있으며, 남부캐롤리나대학 연구(1995)에서도 주택가격의 급증이라든지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 와상인구의 증가 등 은퇴노인들의 유입으로 인해 소모될 수 있는 잠재적 비용을, Bennett(1993)는 지가의 상승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구 대부분의 연구들(Happel et al. 1988; Li & Maclean 1989; Haas & Serow 1990; Reeder & Glasgow 1990; Hodge 1991; Wiseman 1991; Sastry 1992; Deller 1995; Reeder 1998)은 은퇴인구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아닌 촉복으로 작용한다는 데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자본의 유입과 이로 인한 지역산업의 발달, 소비 활성화, 고용창출, 지방세수의 증가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다양한 직업과 일자리의 생성은 젊은 인구의 유입을 가져와 이주한 은퇴노인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의 증가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은퇴자는 사회적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이고 소득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국가나 지방의 재정을 축내는 부담적인 존재로만 인식된다. 그러나 농촌으로 이주한 은퇴자들의 대부분은 건강하고,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Biggar 1980; Longino 1985;

손승영 1990에서 재인용). 지금의 은퇴자들 또한 과거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고, 독립적이며, 이주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유용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Reeder 1998). 이와 같이 은퇴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농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은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은퇴자를 유입하려는 정부나 지방정부의 노력에 뜻을 같이 하려는 의도 때문에 실제보다 은퇴인구의 농촌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과장되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Hodge(1991)와 Reeder(1998)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단편적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은퇴노인들을 유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경제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어떤 특성을 가진 노인들의 유입이, 어떤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은퇴인구 유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오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명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런가하면, 국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대로 은퇴자를 유입하려는 정책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은퇴이주의 경제적 효과나 관련성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조사대상 범위와 측정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의 연구들(안동만 1996; 오세익 2004; 윤순덕 등 2005)은 도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은퇴 후 농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등 도시민의 전원지향 이동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이처럼 은퇴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은퇴이동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 이주의사가 은퇴 후 실질적인 이주와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은퇴인구 유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담론으로만 이루어질 뿐 실증연구를 통해 이를 밝히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과도한 도시화와 이로 인한 도시노동시장의 포화, 이에 따른 실업비용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들(이성우 등 2002; 이성우·윤성도

2006)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다. 보기 드물게 국내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와 지역사회 의 경제적 활성화와의 관련성을 구명한 연구(이지숙·이미에 2000)가 있긴 하나 국내자료가 아닌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은퇴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뢰할만한 국가통계인 통계청의 1995,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시자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연보 및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이용하여 읍면이하 지역이 있는 전국 138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용 자료의 제한 등으로 관련성을 밝히는 데는 미흡하지만, 향후 은퇴인구 유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다각적으로 구명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찍이 1980, 1990년대부터 활동능력과 경제력 있는 도시은퇴자의 농촌지역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왔다. 이처럼 서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대로 은퇴자를 유입하려는 노력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퇴자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졌고 단편적으로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Hodge 1991).

유입된 은퇴인구가 지역경제에 축복일 것인가? 아니면 어두운 그림자일 것인가? 일반적으로 노인은 비생산적인 인구이자 문제집단으로 간주되며 의료서비스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은퇴인구 유입의 장단점이 공존하고 상반된 예측이 가능하지만, 서구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가능성이나 제언 정도로 언급하고 있을 뿐 부정적인 측면의 결과가 나타나거나 이 부분이 실증연구로 수행된 바가 거의 없으며,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만 실증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진 은퇴이주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은퇴인구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은 직접적인 영향 뿐 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 유발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 직접적인 영향이고 간접효과인지를 구별하여 언급하기 보다는 주로 지역경제의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은퇴자들이 농촌으로 이주하게 되면 연금 등의 자본을 농촌으로 가져와 투자하게 되고, 주택이나 식품, 오락, 건강서비스 등을 구매하며, 이러한 소비활동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정부에 세금을 내며, 시간제 혹은 전일제의 일을 하며, 학교, 교회, 병원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주은퇴자들의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늘어난 일자리의 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며,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복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유입자본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은퇴자의 유입은 새로운 자금의 유입을 가져온다. Deller(1995)는 은퇴자의 수입은 이전지출과 재산소득으로서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안정화에 일조한다고 하였다. 그런가하면, Sastry(1992)는 좀 더 구체적으로 1985~1990년 미국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노인이 이주하면서 1억 7천 달러의 돈이 유입됨을 밝혔다. 이러한 유입자본은 또한 지역은행이나 벤처기업에 투자되기도 하고 자신의 자본을 이용해 그들 소유의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발생시켰다(Deller 1995; Reeder 1998).

둘째, 소비지출의 증가를 보인다. 이주한 은퇴자들은 집, 음식, 오락 및 건강서비스 등을 주로 구입한다. 지역에 있는 기업의 재화서비스, 그리고 지역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은퇴자의 연금, 저축, 취업 등으로 갖게 되는 개인소득을 직접 지출하게 된다(Happel et al. 1988; Hodge 1991). 미국 서북부 캐롤리나 지역을 조사한 Haas(1990)의 연구에서는 은퇴자들이 1년에 평균 3만

6천 달러를 쓰고, 그것의 직·간접적인 효과들을 측정할 결과, 1명의 은퇴자가 최소 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nnett(1993)는 아틀란타 남부 해변으로 이주한 은퇴자들을 조사한 결과, 연 평균 지출수준이 3만 천 달러에서 4만 7천 달러에 달해 그 지역에 큰 경제적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직접적인 소비 활동은 다중효과를 통하여 간접효과를 가져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일자리와 다양한 직업을 창출한다. Sastry(1992)의 연구에서는 미국 플로리다로 유입된 은퇴자 2.5명당 일자리 1개가 창출되었으며 Wiseman(1991)의 연구에서는 버지니아와 북부 케롤리나의 경우 2.2명당 1개, 서부 버지니아와 캔터키의 3.4명당 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5천명의 은퇴자 유입을 위해 설계된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Deller(1995)는 은퇴자 100명당 55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소매업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고, 건강, 건설, 요식업, 음료업 순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Deller 1995). 취업은 상품을 생산하는 영역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 은퇴자 유입으로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소매업, 서비스, 재정, 보험, 부동산, 건축업이 이에 해당된다. 은퇴인구의 지역유입으로 인해 소매상과 서비스 산업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전문 의료서비스, 비전문 소매업까지 다양한 직업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eder & Glasgow 1990; Haas & Serow 1990; Sastry 1992). 캐나다 304개 지역을 조사한 Li와 Maclean(1989)의 연구에서도 노인인구 증가와 소매업 규모, 상업서비스의 다양성과 통계적으로 강한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은퇴자들의 이주와 관광업 사이의 상관관계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allmann & Espinoza 1996). 왜냐하면 은퇴자들이 이주를 결정하기 전에 은퇴생활을 할 지역을 찾기 위해 이주 잠재지역을 휴가기간 동안 방문하기 때문이다.

넷째, 지방세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대부분

의 은퇴자 유입에 관한 연구들은 최소한 은퇴 초기에는 정부의 세금을 소비하기보다 세금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Reeder 1998). 은퇴자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높은 비용의 교육서비스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대중교통이나 건강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의료비도 대부분 의료보험으로 충당하며 비보험 서비스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불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은퇴자의 의료비용 지출은 지역경제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Serow 1990; Hodge 1991). 그러나 Sastry(1992)는 노인의 건강비용에 대한 국가 조세를 살펴본 결과, 48.8%를 국가가, 32.8%를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의 부담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은퇴이주자들의 대부분은 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은퇴자들로부터 받는 주택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받는 등 지역세금 지불자 중 은퇴자의 상대적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Happel et al. 1988; Hodge 1991).

은퇴이주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혜택은 자본유입, 구매나 세금, 직업 창출에만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들의 과반수 이상이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고 이들의 35% 정도는 비영리노동자라고 한다(Bennett 1993). 이처럼 비영리조직에서의 고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Deller 1995). 고소득의 은퇴자들은 은퇴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봉사활동이 주로 비영리기관에서 실시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Hodge(1991)는 직업과 서비스의 다양성이 주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며, 예로 지역에 소극장이 계속 운영되게 하는 등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유지되고 증진된다고 보았다.

III. 연구방법

1. 측정항목 및 이용자료

1) 은퇴인구유입비용

일반적으로 노인은 65세 이상을 지칭하고 대

부분 직업에서 은퇴하였기 때문에, 노인과 은퇴자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은퇴는 대부분 65세 이전에 경험하며, 빠르게는 50대 초반부터 시작된다. 미국은 은퇴군(Retirement Destination County)을 선정할 때, 60세 이상 인구의 순유입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USDC 200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연령이 55세 전후라는 점을 감안하여, 은퇴인구를 55세 이상으로 보고 55세 이후에 농촌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지역별 은퇴인구유입비율은 유입된 은퇴인구수 뿐만 아니라 유출된 은퇴인구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은퇴인구의 순유입률(net immigration)인 $\langle [(유입은퇴인구수 - 유출은퇴인구수) / 은퇴인구수] \times 100 \rangle$ 로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간 인구이동자료의 제공범위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유출된 은퇴인구를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왜냐하면, 지역간 인구이동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제공하고 있긴 하나, 2001년 이전 자료는 시·도 통합자료만 제공되고 시·군별 식별자료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2002년 이후는 시·군별 식별자료가 제공되긴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측정할 수 있는 2002년 이후의 자료수집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해당 시·군의 $\langle (유입은퇴인구수 / 은퇴인구수) \times 100 \rangle$ 로 은퇴인구유입비율을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전국자료로 통계청의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전국민의 2% 인구에 대한 미시수준의 자료이긴 하나, 개인별 식별은 불가능해도 시·군별 식별이 가능하고 5년 전 거주지를 묻는 항목이 있어 읍면이하 지역의 60세 이상 인구를 추출하여, 5년 전 거주지가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인 인구수의 비율로 은퇴인구유입비율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시·군별로 새로운 데이터 셋을 만들었다. 분석대상 시·군은 일반적으로 농촌으로 분류되는 읍면이하 지역이 있는 138시·군을 대상으로 하였고 도농복합시인 경우는 동지역은 제외하고 읍면지역만 분석에 포함시켰다.

2) 지역경제 활성화

은퇴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구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정 지표로 자본유입/소비활성화, 고용창출, 지방세수 등 3개 지표, 측정항목으로는 지역내총생산(GRDP), 15~5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비율, 15~54세 취업인구 중 도·소매업 취업률, 주택소유율, 자동차소유율 5항목을 선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은퇴자가 유입되면 자본이 함께 유입되고(Reeder 1998; Sastry 1992; Deller 1995), 다양한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소비지출이 증가하므로(Happel et al. 1988; Haas 1990; Hodge 1991; Bennett 1993), 이를 통합하는 측정항목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5명이 참석한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내총생산(GRDP)을 측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비활성화 지표로 유입은퇴가구의 가계지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가계지출에 대한 자료는 도시근로자가구나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군별 표본크기가 매우 작아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에 제한적이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지역내총생산과의 관련성은 시·군별(읍면이하지역 138시·군)의 1) 2000년도 지역내총생산(GRDP), 2) 지역내총생산(GRDP)의 1995년도(일부는 1998년도)와 2000년도의 차이로 측정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는 통계청에서 도별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내총생산을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72개 시·군별 2000년도와 1995년도의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 중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1998년부터 생산하고 있어 2000년도와 1998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자료는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아 결측치로 처리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일부 비교년도의 차이, 138개 시·군 중 72개 시·군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인구 유입과 GRDP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은 전국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결과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성을 탐색하는데 통계적으로 무리가 없는 표본수이기에 후속 연구를 위한 이들과의 관련성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유입된 노인인구의 소비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들(Li & Maclean 1989; Haas & Serow 1990; Reeder & Glasgow 1990; Wiseman 1991; Sastry 1992; Deller 1995)에 근거하여, 고용창출 지표를 선정하였다. 고용창출을 측정하는 항목으로는 취업인구가 얼마나 증가한지를 살펴보고자 15~5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과 도소매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았다는 보고에 따라 15~54세 취업자 중 도소매업 취업률을 선정하였다. 앞에서 은퇴인구를 5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는 15~54세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고용창출 효과는 시·군별(읍면이하지역 138시·군) 1) 2000년도 15~54세 인구 중 경제활동비율, 2) 15~54세 경제활동인구 중 도소매업 종사인구비율, 3) 15~54세 인구 중 경제활동비율의 1995년도와 2000년도의 차이, 4) 15~54세 경제활동인구 중 도소매업 종사인구비율의 1995년도와 2000년도의 차이로 측정하였다. 이용자료는 통계청의 1995년도와 2000년도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시자료이다. 이 역시 1)~4)의 값을 원시자료에서 분석한 후, 시·군별로 만들어진 새로운 데이터 셋에 추가 입력하였다.

셋째, Happel 등(1988), Serow(1990), Hodge(1991), Sastry(1992) 등의 연구에 기초하여, 이주한 은퇴인구로부터 걷는 주택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의 증가 지표를 선정하였다. 시군에서 생산하는 지역통계에는 은퇴인구만의 주택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정보가 없어, 통계청의 1995년도 및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시자료에서 주택소유여부, 자동차소유여부 조사항목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인구유입과 지방세 증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주택소유율과 자동차소유율이 높을수록 주택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측정항목은 1) 2000년도 시·군별(읍면이하지역 138시·군) 55세 이상 유입은퇴인구의 자동차소유율, 2) 55세 이상 유입은퇴가구 주택소유율의 1995년도와 2000년도의 차이로 측정하였다. 유입은퇴인구 자동차소유율의 1995년도와 2000년도의 차이는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자동차소유' 항목이 조사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자동차소유율과의 관련성은 1995년도와 2000년도 변화량으로 분석하지 않고 유입이 모두 이루어진 당해연도의 현황만을 가지고 분석한 제한점이 있다. 추후 통계청의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원시자료가 제공되면 2000년도와의 변화량을 이용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1)~2)의 값을 2000년도와 1995년도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시자료에서 분석한 후, 시·군별로 만들어진 새로운 데이터 셋에 추가 입력하였다.

2. 분석방법

먼저 농촌으로 유입된 은퇴인구비율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읍면이하 지역 138개 시·군을 대상으로 군지역과 도농복합시별로 유입비율을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별 지역경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138개 시군별 취업률, 도소매업취업률, 주택/자동차 소유율을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꺾은선 그래프를 그렸다. 그리고 은퇴인구유입비율과 지역경제 현황 또는 변화 분포, 이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win 프로그램에 의한 산점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은퇴인구유입비율의 지역적 분포

읍면이하 지역이 있는 전국 138개 시·군의 은퇴인구유입비율을 5% 미만, 5~10% 미만, 10~15% 미만, 15% 이상으로 구분하여 그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은퇴인구유입비율이 5% 미만인 비율이 전체 138개 시·군 중 96개 시·군으로 69.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5~10% 미만인 비율이 19.6%(27개 시·군), 10~15% 미만

Table 1. County-level In-migration rates of retirees

Classification	County(%)		
	County	Complex Town	Total
0~5% under	63 (69.2)	33 (70.2)	96 (69.6)
5~10% under	18 (19.8)	9 (19.1)	27 (19.6)
10~15% under	8 (8.8)	2 (4.3)	10 (7.2)
15% over	2 (2.2)	3 (6.4)	5 (3.6)
Total	91 (100)	47 (100)	138 (100)

인 비율 7.2%(10개 시·군), 15% 이상인 비율 3.6%(5개 시·군)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은퇴인구의 순유입비율이 15% 이상인 지역을 은퇴군(Retirement Destination County)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주요 농촌유형 중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총 3,141개 카운티 중 440개 카운티인 14%가 은퇴군으로 선정되어(USDC, 1995)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은퇴 후 농촌이주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군지역과 도농복합시로 구분하여 은퇴인구유입비율의 분포차이를 살펴보면, 10~15% 미만인 지역은 도농복합시(4.3%)보다는 군지역(8.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15% 이상인 지역은 군지역(2.2%)보다는 도농복합시(6.4%)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이 혼합된 지역으로의 은퇴이주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전국 138개 시·군의 은퇴인구유입비율을 5% 미만,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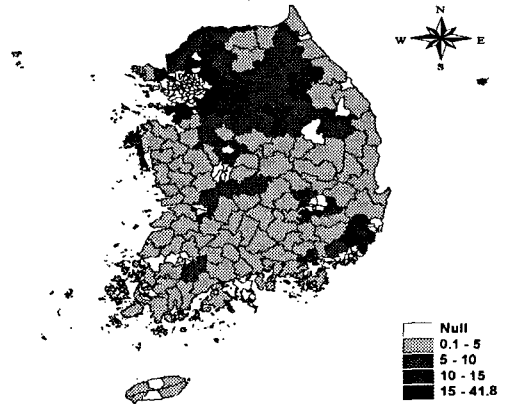


Fig. 1. County-level distribution of retirement in-migration (%)

미만, 10~15% 미만, 15% 이상 등 4단계로 구분하여 그 분포를 그림으로 표시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색이 진할수록 은퇴인구유입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주로 수도권에 접해있는 경기도 지역의 시·군에서 은퇴인구유입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 주변지역은 인구가동이 잦은 지역으로 유출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로 실제보다 유입인구비율이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부지방 아래 보다는 중부지방 위에서 은퇴인구유입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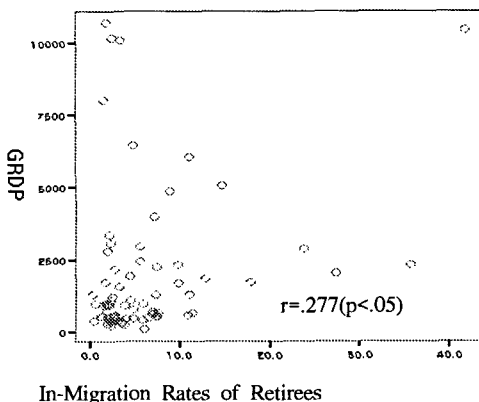


Fig. 2. Retirement migration and GRDP(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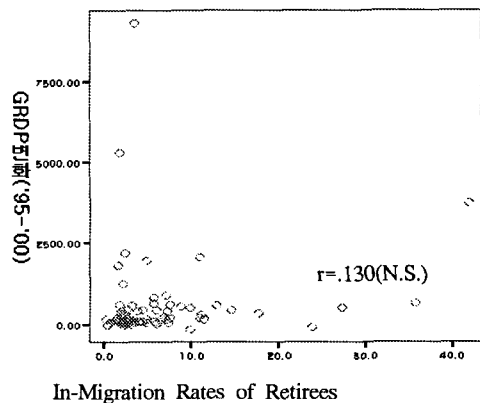


Fig. 3. Retirement migration and GRDP change

2. 은퇴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관련성

1) 은퇴인구유입과 지역내총생산

은퇴인구유입비율과 지역내총생산(GRDP)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Fig. 2, Fig. 3과 같다. 1995년에 55세 이상이었던 사람이 2000년 현재 거주지를 옮겨 읍면이하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로 측정된 은퇴인구유입비율과 2000년도 지역내총생산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r=.277, p<.05$)을 보였지만, 1995년 또는 1998년과 비교하여 2000년도 지역내총생산의 변화와는 역시 정적 상관($r=.130, NS$)이 있었지만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퇴인구유입비율

이 높게 나타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72개 시·군의 자료를 가지고 지역내총생산(GRDP)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는데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은퇴인구유입비율이 낮은 다른 시·군까지 포함하여 GRDP와의 관련성이 분석된다면 이들의 관련성이 여전히 긍정적이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부정적인 관련성이 나타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2) 은퇴인구유입과 고용창출

지역별 은퇴인구유입비율과 고용창출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138개 시·군별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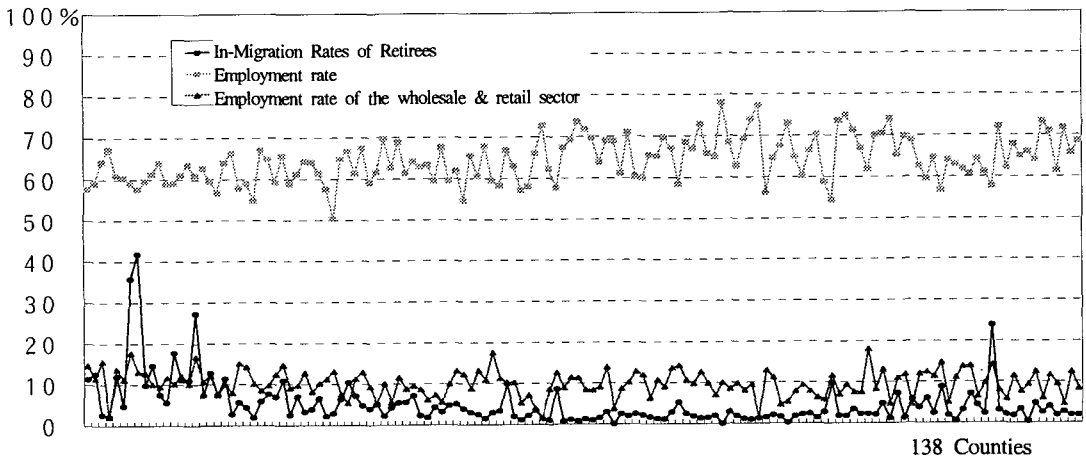


Fig. 4. County-level employment(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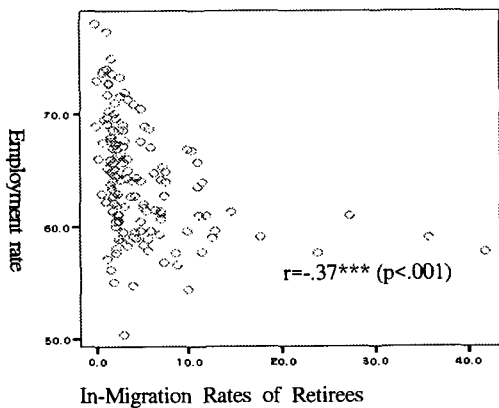


Fig. 5. Retirement migration and employment I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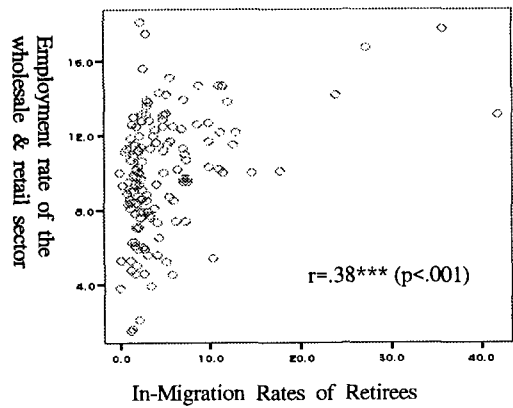


Fig. 6. Retirement migration and employment II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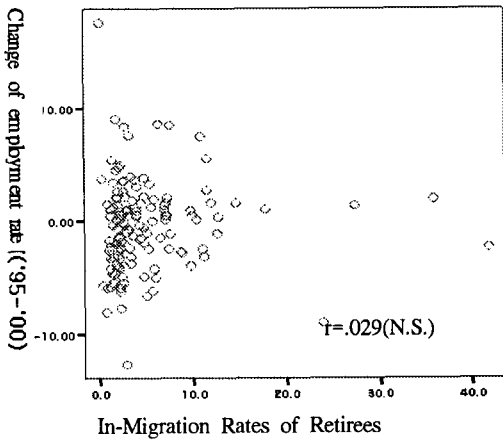


Fig. 7. Retirement migration and employment change I

퇴인구유입비율, 2000년도의 15~54세 인구의 취업률과 15~54세 취업인구 중 도소매업 취업률의 분포는 Fig. 4와 같다.

지역별 은퇴인구유입비율과 2000년도 취업률은 서로 같은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반면, 도소매업 취업률과는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별 은퇴인구유입비율과 2000년도의 15~54세 인구의 취업률과 15~54세 취업인구 중 도소매업 취업률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Fig. 5, Fig. 6에서 확인된다. 1995년에 55세 이상이었던 사람이 2000년 현재 거주지를 이동하여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로 측정한 은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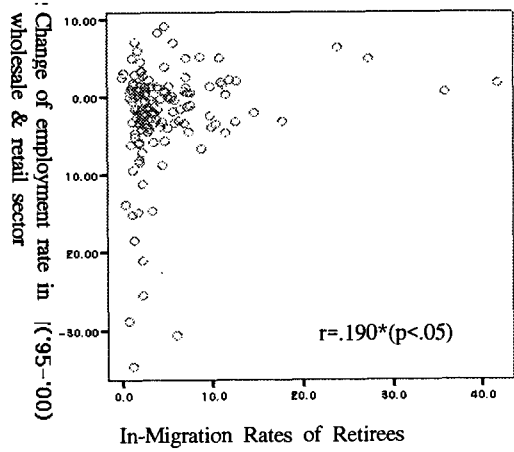


Fig. 8. Retirement migration and employment change II

구유입비율과 2000년도 15~54세 취업률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37, p < .001$)을 보였지만, 2000년도 15~54세 취업인구 중 도소매업 취업률과는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r = .38, p < .001$)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이 은퇴인구의 이주로 인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주하기 전인 1995년도의 취업률과 2000년도의 취업률의 차이, 1995년도의 도소매업 취업률과 2000년도의 도소매업 취업률의 차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995년과 비교하여 2000년도 취업률, 도소매업 취업률의 변화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Fig.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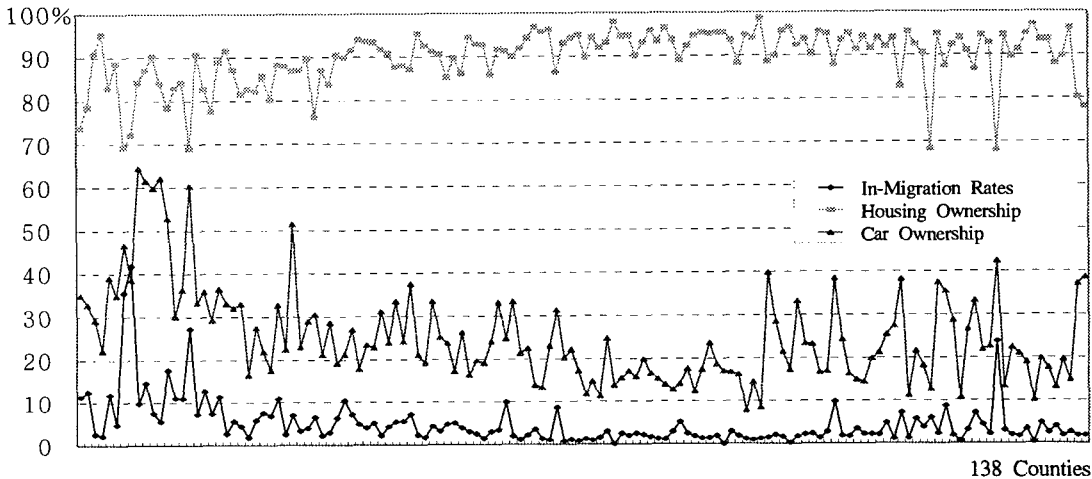


Fig. 9. County-level housing and car ownership(2000)

Fig. 8과 같다. 은퇴인구유입비율과 2000년도 취업률과는 유의미하게 부적 상관을 나타냈었으나 1995년과 2000년 취업률의 변화와는 부적 상관은 사라지고 의미가 없는 것으로($r=.029$, N.S.) 나타났다. 반면, 1995년과 2000년 도소매업취업률 변화와는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r=.190$, $p<.05$)이 계속 나타났다. 즉, 높은 은퇴인구유입비율이 지역의 취업률 증가와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으나 도소매업취업률의 증가와는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은퇴인구유입과 지방세수의 증가

지역별 은퇴인구유입비율과 지방세수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138개 시·군별 은퇴인구유입비율, 2000년도의 유입노인가구의 주택보유율, 자동차소유율의 분포는 Fig. 9와 같다. 지역별 은퇴인구유입비율과 2000년 유입노인가구의 주택소유율은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인 반면, 자동차소유율과는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별 은퇴인구유입비율과 1995년도와 2000년도 유입노인가구의 주택소유율 변화와 2000년도 자동차소유율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Fig. 10, Fig. 11에서 확인된다. 은퇴인구유입비율과 유입노인가구의 주택소유율 변화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r=-.25$, $p<.01$)을 보였지만, 자동차소

유율과는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r=.58$, $p<.001$)을 보였다.

3. 은퇴인구유입비율 상위지역의 경제적 변화
지역경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은퇴인구유입비율이 13% 이상이었다고 보고한 Hodge(1991)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138개 시·군 중 은퇴인구유입비율이 10% 이상인 15개 지역의 1995년도와 2000년도 지역경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Table 2). 앞에서는 읍면이하 지역이 있는 13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은퇴인구유입비율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이의 통계적 관련성만 살펴보았지만, 실제로 은퇴인구유입비율이 높은 상위 15시·군의 경제적 변화가 긍정적인지를 보기 위함이다. 2000년도 15~54세 인구의 취업률은 은퇴인구유입비율 상위 15시·군 중 YI, YS, DS, EJ, HS 시·군을 제외한 10시·군에서 1995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도 15~54세 취업인구 중 도·소매업 취업률은 은퇴인구유입비율 상위 15시·군 중 AJ, EC, DS, KJ, JC 시·군을 제외한 10시·군에서 1995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2000년도 55세 이상 유입가구주의 주택소유율은 은퇴인구유입비율 상위 15시·군 중 4시·군(GJ, AJ, DS, EC, PEC)에서만 1995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즉, 은퇴인구유입비율 상위 15시·군의 2/3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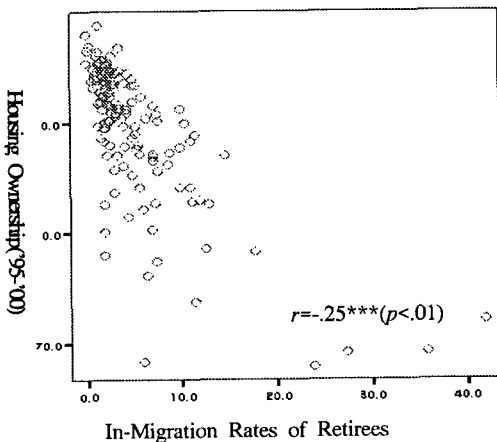


Fig. 10. Retirement migration and housing own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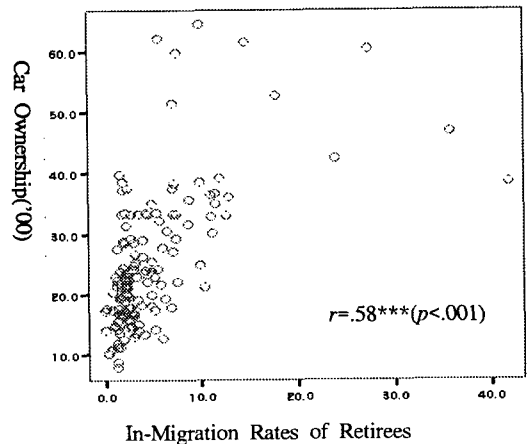


Fig. 11. Retirement migration and car ownership

Table 2. Economic change of the top 15 counties listed on the in-migrant older population(1995-2000)

County	IRR	In 2000					In 1995			
		GRDP (million won)	ER (%)	ERWR (%)	HOR (%)	COR (%)	GRDP (million won)	ER (%)	ERWR (%)	HOR (%)
YI	41.8	10,482	▽57.7	13.1	▽72.1	38.5	6,731	60.1	11.4	79.2
NY	35.7	2,314	59.0	17.7	▽69.3	46.7	1,646	57.1	17.1	72.2
GJ	27.3	2040	61.0	16.7	69.1	60.4	1,531	59.7	11.9	67.5
YS	23.8	▽2,883	▽57.6	14.2	▽67.9	42.4	2,969	66.6	7.9	98.8
AJ	17.7	1,740	59.1	▽10.1	78.4	52.8	1,403	58.2	13.3	78.1
EC	14.6	5,070	61.3	▽10.1	87.0	61.5	4,624	59.8	12.0	83.7
POC	12.8	1,860	59.6	12.2	▽82.7	35.9	1,290	59.3	10.1	88.3
DS	12.6	-	▽59.0	▽11.5	▽78.6	32.9	-	60.2	14.7	81.1
UJ	11.9	-	61.0	13.8	▽83.0	39.1	-	59.5	11.6	83.4
KJ	11.4	-	57.7	▽14.7	▽73.8	35.0	-	55.0	19.3	74.5
YP	11.4	656	64.0	10.0	▽88.9	36.5	517	58.5	9.8	90.6
EJ	11.1	1,306	▽61.0	12.2	▽82.9	30.1	1,002	64.3	10.7	91.4
HS	11.0	6,046	▽63.6	10.2	▽84.2	36.4	3,988	66.2	8.4	90.4
PEC	10.9	594	65.7	14.7	88.3	32.8	420	58.3	9.7	84.2
JC	10.4	-	66.8	▽ 5.4	▽89.9	21.2	-	66.8	8.9	93.7

IRR : In-Migration Rates of Retirees

GRDP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ER : Employment Rate of 15~54 years of aged

ERWR : Employment Rate at the Wholesale & Retail sector of working 15~54 years of aged

HOR : Housing Ownership Rate of In-migrant Householder over 55 years

COR : Car Ownership Rate of In-migrant Retirees over 55 years

▽ : This figure means a decrease in 2000 as compared with in 1995

도만이 1995년도와 비교하여 2000년도의 취업률과 도소매업 취업률이 증가하여, 은퇴인구유입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시·군에서 긍정적인 경제적 변화가 나타난다고는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경제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유입된 은퇴인구의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사례연구 또한 병행되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서구에서 일찍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은퇴인구 유입과 연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관련성 및 효과 구명을 위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과연 은퇴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뢰할만한 국가통계인 통계청의 1995,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원시자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 및 매년 발간하는 시·군 지역통계를 이용하여 읍·면 이하 지역이 있는 138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첫째, 은퇴인구유입비율이 5% 미만인 비율이 전체 138개 시·군 중 96개 시·군으로 69.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5~10% 미만인 비율이 19.6%, 10~15% 미만인 비율 7.2%, 15% 이상인 비율 3.6%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은퇴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관련성은 1995년 또는 1998년과 비교하여 2000년도 지역내총생산의 변화와는 역시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유의

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은퇴인구유입비율과 2000년도 취업률과는 유의미하게 부적 상관을 나타냈었으나 1995년과 2000년 취업률의 변화와는 부적 상관은 사라진 반면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95년과 2000년도 소매업 취업률 변화와는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r=.190, p<.05$)이 계속 나타났다. 즉, 높은 은퇴인구유입비율이 지역의 취업률 증가와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으나 소매업 분야의 취업률 증가와는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세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택과 자동차의 소유율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은퇴인구유입비율과 2000년도 유입노인가구의 주택소유율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r=-.25, p<.01$)을 보였지만, 자동차소유율과는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r=.58, p<.001$)을 보였다.

이 연구결과는 서구에서처럼 은퇴인구유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직접적으로 구명하진 못했으나 국내자료를 이용하여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은퇴인구유입에 따른 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무엇보다 특정 지역 및 시점의 자료 부재 등 공신력 있는 이용자료의 부족, 은퇴인구유입이 특정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은퇴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전국적인 일반화를 하는 데는 제한적이며 따라서 단편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방법의 개선 및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특정지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은퇴인구유입비율이나 고용, 지방세수 등에 두드러진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분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용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은퇴인구 유입비율이 높고 이용자료가 갖춰진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가 추후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은퇴인구유입비율 상위 15시·군의 경제적 변화를 통해 은퇴인구유입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으로 경제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는 이용자료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은퇴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관련성이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접근방법으로 사료된다. 셋째, 은퇴이동과 지역경제 발전과의 관련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수집된 거시자료의 분석 보다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은퇴자들에게서 직접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마이크로 수준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day & Miles 1982).

이런 다양한 연구방법의 시도를 통해 관련성만을 분석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은퇴인구의 농촌유입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소요되는 비용까지 산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은퇴인구가 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경제적 산출이나 혜택뿐만 아니라 투입이나 비용을 함께 이해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은퇴자는 연령, 성, 결혼상태, 소득, 건강상태 등 매우 다양한 인구집단으로, 이들은 각기 또는 결합하여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므로 은퇴자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경제에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은퇴인구의 어떤 조건이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은퇴인구 유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다각적으로 구명하고 관련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손승영(1990) 노령인구 이동의 요인 분석 :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 미 동북부의 경우. 한국사회학 24(겨울), 121-147.

- 안동만(1996) 농경지 시각적 영향 평가-농촌의 주거환경 평가-,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공익적 기능 평가 제3차년도 완결보고서. 농촌진흥청. 61-116.
- 오세익(2004)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순덕·강경하·박공주·이정화(2005) 도시 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5(3), 139-153.
- 이성우·권오상·민성희·박지영(2002) 도농간 인구 이동에 따른 실업비용. 농업경제연구 43(2), 77-110.
- 이성우·윤성도(2006) 농촌사회 유지의 사회적 편익 계측 : 도시화와 실업비용. 농촌경제 29(1), 1-30.
- 이지숙·이미애(2000)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성화와 노인인구 증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미국 중서부지역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연구 10권(겨울호), 89-113.
- Aday RH, Miles LA(1982) Long-term impacts of rural migration of the elderly: Implications for research. *The Gerontologist* 22, 331-336.
- Bennett DG(1993) Retirement Mig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High-Amenity, Nonmetropolitan Areas.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2(4), 466-481.
- Deller SC(1995) Economic Impact of Retirement Migration.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9(1), 25-38.
- Division of Research,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95) Retire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Carolina. Research report supported by the Department of parks, Recreation and Tourism.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29.
- Haas WH, Serow WJ(1990) The influence of retirement in-migration on local economic development. Final report to the Appalachian Regional Commission, No. 89-48NC-10269-89-1-302-0327. Asheville, NC: North Carolina Center for Creative Retirement.
- Happel SK, Hogan TD, & Pflanz E(1988) The economic impact of elderly winter residents in the Phoenix area. *Research on Aging* 10, 119-133.
- Haas WH(1993) Retirement migration: Boon or Burden?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9(4), 387-392.
- Hodge G(1991) The Economic Impact of Retirees on Smaller Communities: Concepts and Findings from three Canadian Studies. *Research on Aging* 13(1), 39-54.
- Judson DH, Reynolds-Scanlon S, & Popoff CL(1999) Migrants to Oregon in the 1990's: Working age, near-retirees, and retirees make different destination choices: *Rural Development Perspectives* 14(2), 24-31.
- Li PS, MacLean BD(1989) changes in the rural elderly population and their effects on the small town economy: The case of Saskatchewan, 1971-1986. *Rural sociology* 54(2), 213-226.
- Reeder RI, Glasgow N(1990) Nonmetro retirement counties' strengths and weakness. *Rural Development Perspective* 6, 12-17.
- Reeder RJ(1998) Retiree-Attraction Policies for Rural Development. Food and Rural Economics Division, Economic Research Servi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e Information Bulletin* No. 741.
- Sastry ML(1992)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s of Elderly Migration : An Input-Output Analysis. *Growth and Change* 23, 54-79.
- Serow WJ(1990) Economic Implications of retirement migration.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9, 452-463.
- Skelley BD(2004) Retiree-Attraction Policies: challenges for Local Governance in Rural Regions.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an Interactive Journal* 9(3), 212-223.
- Stallmann JI, Espinoza MC(1996) Tourism and Retirement Migration. Faculty Paper Series FP 97-3,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Texas A & University.
- U.S.Department of Commerce(2003) Internal Migration of the Older Population: 1995 to 2000. U.S. Census Bureau. 2003(August), 1-11.
- Warnes AM, Law CM(1982) The destination decision in retirement migration. In A. M. Warnes(ed.), *Geographical perspectives on the elderly*(pp.53-81), Chichester: Wiley.
- Wiseman RF(1991) Direct and Indirect Economic Impacts of Elderly Migration on Selected States within the Appalachian Region, Change in the Mountains: Elderly Migration and Population Dynamics in Appalachia. Lexington, Ky.: Sanders-Brown Center on Aging. 71-84.